

한일문화교류

- 머리말
- 「왓쇼이」는 외국에서?
 - 한글의 역사
 - 말과 전쟁
 - 한국어를 사용해서 활약한 일본인
 -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발음이 같은 말
 - 이웃나라의 말
- 일본과 한국의 음식문화
 - 음식문화의 차이
 - 한국음식에서 역사를 다듬어 봅시다.
 - 어느쪽 음식문화도...
- 문화의 전래
 - 불교의 전래
 - 그밖의 문화의 전래
- 한국의 도자기
 - 도자기의 역사
 - 도자기의 종류
 - 청자의 재현
 - 한일의 도자기를 사랑한 일본인
- 한일의 가교로
- 맺음말

한일문화교류

★머리말

뉴스! 기타노 타케시(北野 武) 「h a n a b i」 한국 상영!

기타노 감독의 영화 「h a n a b i」가 한국에서 상영되는 것이 왜 뉴스가 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는 1938년까지 일본문화의 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영화는 물론, 음악도 수입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일본문화의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영화나 음악, 기타 문화를 조금씩 해금하기로 했습니다. 그 제1탄으로서, 칸느 영화제에서 세계적인 상을 받은 「h a n a b i」가 한국에서 상영된 것입니다. 그 밖에 상영된 영화에는 「影武者」, 「우나기」 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접속」, 「쉬리」 등의 인기가 많았던 한국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국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조금씩이긴 합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가 확실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일간의 문화교류의 발자국을 통해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문화교류

~ 「ワッショイ(왓쇼이)」는 외국에서? ~

일본의 여러분은 줄다리기를 할 때, 「왓쇼이!」라는 장단 소리를 건 적이 있지요? 한국의 여러분은 「왓샤!」라는 장단 소리를 걸지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왓쇼이」라는 말은 에도(江戸)시대에 한반도에서, 한국/조선어의 「왔다」라는 말이 일본에 들어온 것이 아닐까라는 설이 있습니다.

현재도 한국의 경상남도지방에서는 「왔다」라는 말을 「왓소」라고 합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힘줄을 줄 때는 「왓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왓쇼이」와 「왓샤!」, 둘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비슷한 말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나라(奈良)라는 지명입니다만, 한국어로는 「나라(國)」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신라의 사자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통역없이도 말을 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같은 말을 공유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쓰는 일본어의 단어는, 어쩌면 한반도에서 건너온 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한일의 역사를 돌이켜 봅시다.

한일문화교류

~ 「フッショイ(왓쇼이)」는 외국에서? ~

★한글의 역사

한글은 1446년, 조선시대 제4대 왕인 세종이 만들었습니다.

왜 세종대왕은 글자를 만들려고 한 것일까요?

당시는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한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부 학자나 관리들밖에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정부의 생각을 널리 민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알맞고 배우기 쉬운 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능한 학자들을 집현전이라는 곳에 모아,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눈병에 걸릴 정도로 정열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글자 「한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언어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독특한 언어는 자기 민족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반들은 한글을 좋게 보지 않고 한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조선후기에 와서 서민들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고, 대본 가게도 생겨서 예술에 접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서민이나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한글로 된 소설도 나왔습니다. '홍길동전', '구운몽', '춘향전' 등의 많은 작품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설에는 서민들의 소원과 더불어 양반사회에 대한 비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일문화교류

~ 「ワッショイ(왓쇼이)」는 외국에서? ~

★말과 전쟁

1590년에 일본을 통일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명나라의 정복을 꾀하여 두 번 조선반도에 출병했습니다. 1592년, 15만명의 병사가 부산에 상륙했습니다(일본에서는 文祿の役, 한국에서는 임진왜란). 1597년에는 두번째로 출병시켰습니다(일본에서는 慶長の役, 한국에서는 정유왜란).

많은 희생을 치른 전쟁이었습디만, 생각을 바꿔 조선측에 붙어서 싸운 일본군 병사나, 똑같이 일본에 협력한 조선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야가의 페이지 참조)

일본군이 이순신이 발명한 거북선에 의해 한반도에서 퇴거함으로써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때, 일본군이 많은 조선인과 함께 조선문화를 강제적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3세기 말, 고려시대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무·금속 인쇄가 발명되었는데, 유학, 법령, 의학, 불전 등의 동활자 20만개 정도를 일본에 가져왔습니다. 불교서적, 건축서적 등의 많은 서적을 약탈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한국·일본 쌍방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만, 인쇄공이 전해준 활판인쇄의 기술은 에도(江戸)시대의 서적에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한일교류의 역사(근대이전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이 남긴 것」 참조

한일문화교류

~ 「ワッショイ(왓쇼이)」는 외국에서? ~

★한국어를 사용해서 활약한 일본인

일본이 쇠국했었던 무렵, 조선어를 사용해서 조선과 외교·무역의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쓰시마 번(對馬藩)의 아메노모리 호오슈우(雨森芳洲)라는 유학자입니다. 호오슈우는 1668년, 오오미(近江)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도(江戸:도쿄의 옛 이름)에서 유학과 조선어를 공부하고, 31살 때 쓰시마로 떠났습니다. 쓰시마에서는 조선반도와 의 가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도쿠가와(徳川)막부는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쇠국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조선과는 특별히 교류를 했었습니다. 일본의 장군이 교대할 때 등에 조선왕국의 국서를 전하기 위해 조선에서 사절이 파견되었습니다.

통신사는 부산에서 쓰시마로 건너, 북큐우슈우(北九州)를 거쳐 오사카(大阪), 에도로 향했습니다. 막부는 충력을 기울여 예절을 다해서 환대했습니다. 학자나 의사, 무사, 예술가 등 총원 500명이나 되는 대행렬이었습니다.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없었던 일본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교류하려고 했습니다.

호오슈우도 통신사에 동행해서(1711년, 1719년에 에도와 쓰시마를 왕복) 활약했습니다. 그는 외국과의 교류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728년에는 「交隣提醒」이라는 책을 써서 외교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誠信의 교제'의 뜻은, 서로 속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眞文으로 교제한다는 뜻이다」라고.

사랑의 마음을 아끼고, 국교 수복을 위해 많이 노력한 아메노모리 호오슈우의 정열이 통해 옵니다.

더 알고 싶은 분은 「한일교류의 역사(근대이전편)조선통신사」 참조

한일문화교류

~ 「ワッショイ(왓쇼이)」는 외국에서? ~

★일본어와 한국어 중에서 발음이 같은 말

일본어의 「우동」, 「오뎅」이라는 말은 한국어로도 「우동」, 「오뎅」이라고 합니다.

왜 일본어와 발음이 같을까요?

1910년, 일본군은 조선을 일본 영토의 일부로 하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한일합방). 일본은 총독부라는 관청을 서울에 두고, 조선사람들은 일본인에 의한 정책에 따르게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선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로 말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학교 수업도 일본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름도 일본명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이 실시되었습니다. 일본 음식도 먹고, 그때 쓰던 음식명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땅을 빼앗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부정하고,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한국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린 한국어로 모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항일의병)이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이 의병 안중근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제국주의 일본을 확대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안중근은 조선·일본·중국이 연대하기 위해서는, 이토를 암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안중근은 5개월 후에 처형되었습니다만, 처형되기 직전까지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만, 일본군과 경찰에 의해 탄압되었습니다. 그 후도 한민족의 항일독립의 정신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벌어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조선은 35년에 걸친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광복절」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후의 보상문제 등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한일교류의 역사(근·현대편) 한일합방」 참조

한일문화교류

~ 「ワッショイ(왓쇼이)」는 외국에서? ~

★이웃나라의 말

영어로 「1, 2, 3」을 「one, two, three」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는 「uno, dos, tres」
일본어와 한국어로는 「1, 2, 3」을 뭐라고 할까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랑도 있을 겁니다. 일본어로는 「이치, 니, 삼」. 한국어로는 1은 '일', 2는 '이', 3은 '삼'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웃나라의 「1, 2, 3」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한국어(조선어)는 대한민국의 약 4,000만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 2,000만명의 사랑들 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사랑들 등, 많은 사랑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표기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북은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으며, 남북의 분단이 사랑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은 있어서 안 됩니다.

말은 사랑을 연결시키고, 마음을 연결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웃나라의 말을 통해서 역사를 더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참고문헌

- * 図説 朝鮮と日本の歴史—光と影 前近代編 1994年
久保伊規夫著 明石書店 p.80-
- * 韓国の歴史散歩 1991年
井上秀雄、江坂輝弥、山口修、李進熙著 pp.11-17
- * はじめてでであうアジアの歴史 あすなろ書房 pp.20, 24, 26, 322
- * 入門 韓国の歴史 国定韓国中学校国史教科書 1998年
石橋延男、三橋広夫 明石書店 p.252
- * 韓国のすべて 1994年
林鍾漢執筆 大韓民国・海外公報館 pp.20-45
- * 10日間のハングル 別冊宝島42 1990年 pp.10-14
- * わかりやすい韓国の歴史 国定韓国小学校社会科教科書 1998年
石橋延男 監訳 明石書店 pp.28-54
- * 朝鮮・韓国を知る本 別冊宝島39 1992年 pp.257-258

編集人 石井慎二 J I C C 出版局

한일문화교류

~ 일본과 한국의 음식문화 ~

★ 음식문화의 차이

왼쪽은 일본의 식기, 오른쪽은 한국의 식기입니다.
다른 점, 같은 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전통적인 식기



한국의 전통적인 식기



한일문화교류

~ 일본과 한국의 음식문화 ~

★ 앞 페이지 사진의 답은...



‘젓가락’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나무로 된 젓가락을 씁니다만, 한국에서는 금속제 젓가락을 씁니다. 밥은 숟가락으로 먹고 반찬은 금속제 젓가락으로 집어먹습니다. 일본처럼 나무로 된 젓가락으로 먹는 습관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릇’ 일본에서는 목제 또는 도자기가 많고, 한국에서는 금속제 그릇과 도자기계 그릇이 많습니다.

「한국의 도자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한국의 도자기」 참조

한국의 식기는 뜨거운 음식이 많기 때문에 식기를 손에 들지 않고 숟가락을 써서 먹습니다. 요리에 탕이 많은 것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젓가락은 금속제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것은 품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헤이안(平安)시대 중기까지 조선의 영향을 받아 숟가락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나무로 된 그릇의 기술이 발달해서 그릇이 가볍고 작기 때문에 손에 들고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젓가락은 목제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습니다. 그릇을 손에 들고 먹지 않으면 품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통적인 예의범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먹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문화

	일본	한국
젓가락	목제	금속제
그릇	목제, 도자기	금속제, 도자기
주식	쌀	쌀
부식	일본식 김치	김치
예의 범절	그릇을 들고 먹는다 한쪽손을 결들인다 무릎을 세우면 안 된다	그릇을 들고 먹지 않는다 한쪽손을 결들이지 않는다 다 무릎을 세워도 좋다(여성)

한일문화교류

~ 일본과 한국의 음식문화 ~

★ 한국음식에서 역사를 다듬어 봅시다.

한국요리의 주식은 쌀이 중심입니다만, 대추, 잣, 호두, 밤 등도 섞어 먹습니다. 이것은 '医食同源'이라고 해서,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는 약이라는 중국의 생각에 유래됩니다.

고기요리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에 갈비 등의 고기요리가 있습니다. 4세기 후반에 불교가 전래되자 고기요리는 금지되었습니다만, 13세기에 몽고가 고려에 침입함으로써 가축이 사육되고 다시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정치에 유교를 도입했기 때문에 고기요리가 보급되고, 절기에 따라 먹는 독특한 요리가 발달되어, 음식문화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예) '호두를 먹으면 이가 튼튼해진다.'

'술을 마시면 귀가 좋아진다' 등.

김치



또한 한국의 맛이라고 하면 뭐니뭐니해도 김치입니다. 김치는 배추김치 뿐만 아니라, 무우, 오이 등 약 180종류의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는 겨울의 야채가 수확되지 않는 시기의 보춘식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11~12월이 되면, 김장이라는 김치용 야채를 매매하는 시장이 열립니다. 김치를 만들 때에 없어서는 안되는 고추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전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한국측 원고 「『한국과 일본의 음식문화』 - 김치의 세계화-」로

한일문화교류

~ 일본과 한국의 음식문화 ~

★ 어느쪽 음식문화도

어느쪽 음식문화도 쌀을 주식으로 하고, 젓가락을 쓰고, 최고의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문화에 차이가 있어도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없습니다. 음식문화는 사랑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습관이며 역사입니다. 서로의 습관, 역사를 아끼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참고문헌

- * 知っておきたい韓国・朝鮮 1992年 pp.8-11
歴史教育者協議会編集 青木書店
- * はじめてであうアジアの歴史 2 韓国・朝鮮の歴史 1997年 pp.6-7
歴史教育者協議会監修 あすなろ書房
- * 韓国のすべて 1994年 pp.174-176
林鍾漢著 大韓民国・海外公報館

한일문화교류

~ 문화의 전래 ~

★ 불교의 전래

한국과 일본의 있는, 꼭 닮은 미륵보살상은 교과서 등에서 익숙합니다. 한국에 있는 보살상은 금동제, 일본의 고오류우지(広隆寺)에 있는 상은 목제입니다.

왜 꼭 닮은 상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것일까요?

불교는 5세기 후반에 인도의 석가에 의해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서 조선반도에 전해졌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의 삼국에서는 독자적인 불교를 만듦과 동시에, 중국의 건축, 조각, 회화등 많은 문화를 받았들였습니다.

일본에는 538년에 백제의 성왕이 처음으로 불교를 전했습니다. 일본의 불교는 조선반도로부터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전해졌기 때문에, 꼭 닮은 불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무렵, 야마토초오테이(大和朝廷)는 삼국에서 온 도래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많은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회화나 종이, 먹의 제조법, 철제 농구, 한자, 건축기술 등 많은 기술이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축조·제조기술은 상당히 우수하고 예술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이며, 2000년 현재, 다음 다섯 가지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한일교류의 역사(근대이전편) 조선삼국의 전쟁과 일본」 참조

① 불국사(535년)

자하문과 안양문에는 두 개의 돌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균형이 잡힌 아름다움과 정교함에서 신라시대의 건축기술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아한 다보탑과 힘찬 석가탑 등은 훌륭합니다.



② 석굴암(751년)

751년에 신라25대 경덕왕시대의 재상·김대성이 부모님을 위해 창건한 석가여래상이 장엄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여래상은 불교미술사상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③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판고(1236년)

고려 고종시대, 1236년부터 12년을 들여서 새기게 한 8만 1258장의 대경전입니다.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불교관계 이외의 문화유산)

④ 창덕궁 비원

창덕궁은 1405년에 조선왕조의 별궁으로서 지어졌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하고, 1609년에 재건되었습니다.

비원은 창덕궁에 있는 정원으로, 주합루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⑤ 종묘의 제례

조선왕조의 역대왕과 왕비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부지내에는 본전과 영녕전, 진열전 등이 있습니다.

5월 첫째 일요일에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종묘의 제례는 거행됩니다.

한일문화교류 ~ 문화의 전래 ~

★ 그 밖의 문화의 전래

그 밖의 문화의 전래에 대해서도 조사해 봅시다.

배 만들기

조선기술은 4세기경에는 중국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원양항해용의 범선이 있을 정도이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에도 신라나 백제에서 기술자가 와서 전해졌습니다.

현재도 한국의 선박기술은 세계에서 최고수준입니다.

다리 만들기

다리를 만드는 기술은 5세기 초에 백제인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천문학

농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천문학도 발전했습니다. 신라시대 674년에 건립된 천문대인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들이 만든 문화를 아낌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 はじめてであうアジア 2 韓国・朝鮮の歴史 1997年 pp.12-13
歴史教育者協議会監修 あすなろ書房
- * 韓国・朝鮮を知るための55章 pp.66-74
井上秀雄、鄭早苗著 明石書店 1992年

한일문화교류
~ 한국의 도자기 ~

★ 도자기의 역사

중국에서 시작된 도자기는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임진왜란 때, 일본에 강제로 연행된 조선의 도공들은, 사쓰마(薩摩)와 아리타(有田) 등에서 많은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고려다완 중에는 井戸다완과 같은 귀중한 다완도 있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가마가 각지에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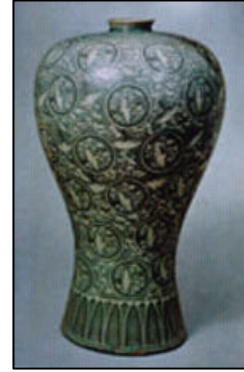
자세한 것은 한국측 원고 「한국의 도자기」 참조

한일문화교류
~ 한국의 도자기 ~

★ 도자기의 종류

① 고려청자(高麗靑磁)

깊고 아름다운 녹색의 도자기로,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그 안에 다른 성분의 흙을 배워 구운 도자기입니다.
(상감기법(象嵌技法))



② 분청사기(粉靑沙器)

고려청자의 쇠퇴로 인해 국민적 자기로서 소박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③ 고려다완(高麗茶碗)



원래 식기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일본 다도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로, 일본에서는 원산지인 조선보다 더 사랑을 받는 다완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④ 조선백자(朝鮮白磁)



유교사상이 강했던 조선시대는 사상의 하나인 검소함과 결백함을 중시했습니다. 옷도 하얀 옷을 자주 입었습니다. 그 소박한 사상을 반영한 것이 백자입니다.

한일문화교류
~ 한국의 도자기 ~

★ 청자의 재현

고려청자를 재현하려고 한 도예가에는 지순택(池順沢)과 유해강(柳海剛)이 있습니다.

지순택은 깊은 산에 틀어박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고려청자를 제작하는 공정은 복잡했기 때문에 정신히 아찔해질 정도의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생을 되풀이한 결과, 드디어 고려청자의 재현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국내외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국제문화대상 등 많은 명예로운 상을 받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전통문화를 잃어지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용기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한일문화교류
~ 한국의 도자기 ~

★ 한국 도자기를 사랑한 일본인

아사카와 다쿠미(淺川 功) -

아사카와 다쿠미(淺川 功 1891-1931)는 임업을 하면서 도자기의 연구와 수집에 노력한 사랑입니다. 한국인들과 친했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① 초목을 지킨다

아사카와 다쿠미는 어릴 때부터 풀이나 나무를 기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농림학교를 졸업한 후 아키타(秋田)현 大館영림서에서 산을 지키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형 노리타카(伯教)가 있는 한국에 건너가 나무를 늘이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소나무를 늘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많이 노력한 사랑입니다.

아사카와 형제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옷,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한국요리를 먹고, 한국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특히 다쿠미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② 민예품이나 도자기를 지킨다.

다쿠미는 나무의 연구 뿐만 아니라, 민예품이나 도자기의 보호에도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미술품의 가치를 잘 인정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쿠미는 조선의 도자기에는 작자나 연대를 적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옛 책을 의지해서 가마터를 돌아다니며, 정확히 기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선도자기 명고'라는 책입니다. 다쿠미는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민중이 각성해서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키워가는 데 모든 행복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한일함방으로 침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던 한국인의 마음을, 일본인이 솔직하게, 힘있게 표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③ 조선의 흙이 되다

1931년 4월 2일, 다쿠미는 급성배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자신이 죽으면 조선의 흙이 되겠다. 조선의 전통을 따라서 매장해주시기 바란다」고 있었습니다.

다쿠미의 죽음이 각 마을에 전해지자, 이별을 아쉬워하는 사랑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다. 즐기차게 내리는 비속에서 「아이고-!」라고 외치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랑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유족, 한국의 친구들이 참석해서 한국식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아사카와 다쿠미는 불과 40년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친구인 야나기 무넨요시(柳宗悦)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사카와는 한국을 사랑하고 조선인을 사랑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④ 기념비의 건립

1984년과 1994년의 두 번, 근무했던 임업시험장 안에 아사카와 다쿠미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임업시험장의 사랑들의 정성이 담긴 모금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한국의 산과 민예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에서 산 일본인,
여기 한국의 흙이 된다」라고.

한국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존경받은 아사카와 다쿠미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참고문헌

- * 朝鮮の土になつた日本人 浅川巧の生涯 1998年
高崎宗司 草風館
- * 小学部3・4年用社会科副読本ソウル 1999年
ソウル日本人学校

한일문화교류

★ 맺음말

지금까지 한일 문화교류의 발자국으로부터 한일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음식문화나 언어 등,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 공통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이점과 공통점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불행한 시대를 극복한 옛사람들의 용기와 노력에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전쟁의 후유증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옛사람에게 배우고 성신의 마음으로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의 일본영화, 음악 등의 개방, 프로야구의 한일교류게임, 2002년 한일공동개최의 월드컵, 그리고 지역단위의 한일교류 등, 서서히 친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한일의 새 문화와 우호의 물결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열심히 해 봅시다.